

침묵과 트라우마 : 수습기자가 들여다 본 경찰관의 마음



 **세계일보**

정세진 기자

지켜본 본 동료 경찰의 반응이 궁금했다. 영등포서 형사와 한 팀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다. “이번에 경찰들도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소식 들으셨나요?”

옛된 얼굴의 형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묵묵히 숟가락만 뜯 뿐이었다. 옆에 앉은 경사가 갈 곳 잃은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했다. “이해하세요.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

나는 그가 입을 열지 않은 이유가 피곤함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저연차 경찰이 내 앞에서만 입을 꼭 다무는 일은 빈번했다. 마와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쯤, 매일 지구대에 도착하면 어깨에 이파리를 달고 있는 경찰은 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팀장님은 저기 안쪽에 계십니다. 팀장님과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발걸음은 무궁화 계급의 경찰에게 향해야 했다.

답답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관악의 한 지구대 A 경위가 내게 대신 답변했다. “보통 기동대 인사발령이 지금쯤 발표돼요. 기동대에 가야 하는 경찰도, 그 가족들도 걱정이 많죠”라고 말했다. 경위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기동대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연차 경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애절복결도 통하지 않았다.

특집 2025년 2월 4일 화요일

광화문광장에 6·25참전국 '감사의 정원'

서울시 연초 공영 기획

보개 국가가 세운 세계 동맹 75주년 기념 광화문 광장에는 6·25전쟁 75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이 조성된다. 광화문 광장은 6·25전쟁 75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이 조성된다. 광화문 광장은 6·25전쟁 75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이 조성된다.



서울시가 6·25전쟁 75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다. 이 정원은 6·25전쟁 75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다. 이 정원은 6·25전쟁 75주년 기념 '감사의 정원'을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 서울의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서울의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시위 트라우마 심한데..." 상담조차 받기 힘든 경찰들

경찰의 트라우마 심한데... 상담조차 받기 힘든 경찰들. 경찰의 트라우마 심한데... 상담조차 받기 힘든 경찰들. 경찰의 트라우마 심한데... 상담조차 받기 힘든 경찰들.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째 악화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200만원

서울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다른 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에 도 나를 맞이해준 순경은 곧장 팀장과 이야기하라고 길을 터줬다. B 경장에게 거듭 저연차 경찰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부탁했다. 경찰 조직을 위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다. 겨우 순경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순경에게 기동대 발령을 걱정하는 동료는 없는지 물었다. 순경이 입을 떼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경위가 나타났다. 그는 순경의 대답을 가로채며 “요즘 불안하고 우울하죠”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마치 이제 원하던 답변을 해줬으니 그만 내버려두라는 듯한 어조였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가 그의 짧은 대답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결국 저연차 경찰의 진짜 목소리를 끝내 듣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경위가 한마디 했다. “우리는 민간인처럼 말 못해요” 이 말을 듣자, 경찰이 자신의 불안과 걱정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다른 폭력처럼 다가왔다.

맨박스 말고, 폴리스박스

‘맨박스’라는 말이 있다.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씌우는 억압을 뜻한다. 말그대로 남성성이라는 ‘상자’에 갇힌 현상이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편견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비슷하게 내가 경찰서를 돌며 관찰한 것은 ‘폴리스박스’였다. 경

찰이라면 으레 강심장, 희생정신, 강철 체력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나약한 거죠. 힘든 건 혼자서 극복해야지. 그걸 왜 남한테 의지해요” 영등포서의 한 과장은 경찰마음동행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단칼에 잘라 말했다. 1층 구내식당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3명의 팀원들도 참여를 생각해본 적 없다며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 과장은 경찰이라면 마땅히 강해야 하고, 그렇기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타인에게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경찰은 또 있었다. 영등포의 한 지구대에서 만난 C 경감은 ‘아픈 경찰’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 여부든 그 내용이든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사체 수습을 담당한다. 자살 현장 등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현장을 자주 마주하는 경찰은 트라우마에 취약하다. 영등포의 한 지구대에서 만난 D 경감은 “3년 전 당산동 아파트 투신자살 현장의 기억이 지금도 불현듯 떠오른다. 사망자의 머리는 바닥에 떨어져 데굴데굴 굴러다니고, 몸은 난간에 걸린 채 내장이 다 쏟아져 있었다”며 참혹했던 현장을 회

상했다. 그는 지금도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장면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주변 동료들이 일상처럼 마주치는 장면이기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더라도 애써 힘들지 않다고 되새긴다. “나만 힘든 건 아니다”라며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또 다른 경찰은 “힘들다고 해서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 경찰”이라며 “처음에는 충격받지만, 나중엔 무뎌진다”고 말했다.

경찰관 개인의 스스로를 향한 억압만이 문제는 아니다. ‘심리상담’이라는 치료방법 자체가 경찰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의 마음동행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공가를 신청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인 사유’라고 간략히 기입하더라도 상급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내비쳐야 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음과 정신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는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밤낮이 뒤바뀌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불규칙한 근무 일정 탓에 경찰은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지구대에서는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팀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쉽게 바꾸기 힘든 ‘시스템’이라는 난

관에 부딪히자, 수습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며 취재원들에게 빈번하게 들었던 반문이 떠올랐다. “그거 지적해서 뭐가 바뀌는데요?”, “쓰나마나한 이야기를 왜 계속 묻는지 모르겠네”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숙인 응급보호시설의 팀장은 인력난 같은 구조의 문제는 가장 지적하기 쉬운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시스템을 지적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속해서 노숙인 응급보호시설의 인력 부족을 문제 삼아왔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는, 그의 깊은 체념이 묻어있는 말이었다.

나도 같은 고민에 빠졌다. 업무 과중이 일상화된 오랜 구조와 경찰의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의미 없는 문제 제기는 아닐까. 이런 고민을 떠안고, 마와리를 돌다 관악의 한 경감 E 씨를 만났다. 그는 지금껏 만난 경찰 중에서 유일하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경찰 조직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E 씨는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바꾸지 못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무작정 경찰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폴리스박스’가 아닌, 경찰에게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 이 시대의 경찰에게 필요한 마음 관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

세계일보 정세진 기자